

‘생명의 샘’ 로얄제리, 자연이 선물한 ‘명약’

‘해피비’ 이종대 대표
www.happybee.co.kr

요즘 자양강장 건강식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로얄제리는 어린 벌(유충)이라고 불리는 태어난 지 12일 이전의 젊은 일벌들의 인두선에서 생산되는 물질이다. 로얄제리의 색깔은 유백색(乳白色)으로 젓과 같으며, 끈끈한 크림(젤리모양)으로 되어 있다.

꿀벌은 왜 로얄제리를 만들고 어디에 쓰는 것일까? 로얄제리는 글자 그대로 임금(여왕벌)이 먹는 물질이다. 그러나 로얄제리는 결코 여왕벌만의 전유물이 아니다. 모든 꿀벌의 알(일벌, 수벌)과 여왕벌이 될 알을 막론하고 3일이 될 때까지 이 신비의 물질을 먹지 못하면 잉태(알)에서 끝날 뿐 다음 단계의 생명을 부여받을 수 없으므로 벌의 세계에서는 새 생명을 창조하는 절대적인 물질이다.

종족 보존을 위해 끊임없이 산란을 해야 하는 여왕벌이 먹는 최고급의 음식이 바로 로얄제리인데, 이것을 먹지 않는 일벌들은 길어야 6개월, 한참 일하는 철에는 45일밖에 못 사는데 비해 여왕벌은 5~6년 동안이나 살 수 있다. 이처럼 이제 어지간한 사람은 정확히는 모를지라도 로얄제리는 양봉의 산물이며, 건강식품의 총아라는 사실쯤은 알고 있다.

로얄제리는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는 자연식품이며,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고 젊음을 유지시켜주고 활력을 불어넣는 작용을 한다. 아미노산, 비타민, 무기질, 고단백 식품으로 신체조직의 산소 소비증가에 도움을 준다. 노화방지, 노인성 질환, 정력 증강, 당뇨, 고혈압 등에 아주 좋은 것으로 발표되고 있다. 또 월경회복 및 생리통, 빈혈, 동맥경화, 요실금, 우울증, 불면증, 피부질환, 폐기능, 간기능 회복 및 신경통, 류머티즘 개선에도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얄제리는 영양공급, 신진대사 촉진, 에너지 공급 등에도 좋은 효능을 지니고 있다.

특히 로얄제리는 주로 신경계 질환과 관련된 원인불명의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고, 무시할 수 없는 항바이러스 효과뿐만 아니라 세균에 대한 매우 강력한 항생물질로서 효과가 증명되고 있다. 각종 임상결과를 통해 로얄제리가 인간의 질병을 치유하는 데 여러 부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잠재력을 지닌 물질이란 점을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내성 모르는 달콤한 내추럴 항생제 '꿀'

다양한 효능으로 20세기 초 이어 재부각

위장관계 제 증상에서부터 치은염, 치주염과 안과질환에 이르기까지...

항생제 내성의 증가로 전통요법에 대한 관심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가운데 꿀이 유력한 대안의 하나로 기대된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되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영국 웨일스주에 소재한 북서웨일스국립건강서비스조합의 페이지랄 라우프 칸 박사팀은 '국제 임상실무誌' (International Journal of Clinical Practice) 10월호에 게재한 '꿀의 영양학적·의학적 가치'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언급했다.

꿀이 감염된 상처부위를 효과적으로 살균시켜 줄 뿐 아니라 치유속도를 촉진하고, 당뇨병으로 인한 수·족절단 비율을 낮추는 용도로도 사용되어 왔음을 상기할 때 주목하기에 충분하다는 것.

칸 박사는 "꿀이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식품의 하나인 데다 고대로부터 화상(火傷)을 비롯한 각종 상처를 치유하는 용도로 사용되어 왔음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고대 이집트의 투탄카멘왕 무덤에서 발견된 꿀이 전혀 상하지 않아 지금도 식용이 가능할 정도라는 것.

특히 꿀은 20세기 초까지만 하더라도 상처치료 용도로 각광받았지만, 1940년대에 들면서 항생제가 출현함에 따라 외상 치유용도와 관련해서는 일반의 관심권에서 멀어져 갔다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꿀은 당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데다 습도가 낮은 편에 속하고, 산성(酸性) 환경을 제공하는 글루콘산(gluconic acid) 함유량이 높으며, 살균력이 강한 과산화수소 성분도 들어 있어 각종 세균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해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칸 박사는 강조했다.

아울러 염증과 부종(浮腫)을 억제하고 암 수술을 위해 복강경 절제수술을 받은 환자들의 상처 부위를 치료하는 데도 적합한 만큼 다양한 용도에 걸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피력했다.



- 기능식품신문 / 2007.10.22 -

'콜록콜록' 밤에 기침하는 아이 '벌꿀'이 특효약

벌꿀 한 스푼이 아이들이 밤에 기침하는 것을 막아 편안한 수면을 돕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펜실베이니아주립대 파울 박사팀이 '소아청소년의학지' 최신호에 발표한 연구결과, 벌꿀이 기침 억제 시럽 성분인 덱스트로메토판(Dextromethorphan) 이나 아무런 치료를 하지 않는 것보다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조사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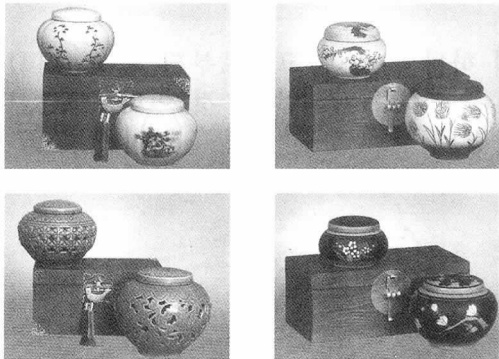
현재 감기 등의 상기도 감염으로 인한 기침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치료법이 없는 가운데 지금까지는 덱스트로메토판이 흔히 사용돼 왔으나 효과는 불확실한 반면 부작용을 유발할 위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벌꿀은 그 동안 전 세계적으로 기침 증상에 대해 민간 요법으로 널리 사용된데다 안전성 또한 입증돼 기침 약물에 대한 효과적인 대체제라고 연구팀은 말했다.

이번 연구에서 연구팀은 감기로 인해 밤에 기침을 하는 105명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벌꿀, 벌꿀향이 나는 덱스트로메토판, 아무런 치료도 하지 않는 세 요법의 효과를 비교했다. 연구결과 벌꿀을 투여 받은 아이들에서 기침 횟수나 심한 정도가 가장 크게 좋아졌으며 이로 인해 아이들 뿐 아니라 부모 또한 잠을 편히 잘 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팀은 벌꿀의 단 맛과 액상 성분이 목구멍을 편하게 할 뿐 아니라 벌꿀 속의 고농도 항산화성분이 이 같은 효과를 내며 벌꿀은 또한 좋은 항균 작용을 가져 감기 증상을 개선시킨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벌꿀이 드물지만 중증 부작용인 일종의 보툴리눔중독증으로 알려진 식중독의 일종을 유발할 수 있는 바 1세 이하의 아이들에서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연구팀은 그러나 이 같은 연령 이상의 아이들에게는 벌꿀이 안전한 바 2~5세 아동에서는 티스푼으로 반 스푼, 6~11세 아동에서는 한 스푼, 12세 이상에서는 두 스푼을 먹일 것을 권했다.

- 메디컬투데이 / 2007.12.4 -



오늘날 전문성과 숙련된 기술은 무인경쟁 시대에서 필수요건입니다.

저희는 그동안 축적된 기술과 오랜 경험을 토대로 보다 좋은 제품을 저렴하게 공급하고 고객의 수요 증진을 만족시켜드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따뜻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시면, 더욱 정진하여 발전된 모습과 성숙한 이미지로 보답하겠습니다.

단지류 전문생산
한솔세라믹주식회사
 경기도 광주시 실촌면 유사리 333
 TEL : (031) 769-5222/3
 FAX : (031) 769-5224



벌꿀박스전문인쇄업체

벌꿀박스인쇄

* 각종고급옵셋인쇄전문 *

꿀병 박스 (내·외) 병라벨 전문제작

- 기성박스 소량판매 -

* 병스티카, 넘버링, 팜프렛, 선물세트박스 *

京南印刷社 · 경남기획
 서울 중구 오장동 90-4 코발트빌딩
 TEL.(02)2272-8341, 2267-2595
 FAX.(02)2278-0812

기획실 : (02)2279-5568
 자기공장 : 경기도 파주시 광탄읍 분수리
 TEL : (0502) 856-9446
 E-mail:kyungnamkjh@hanmail.net
 http://www.o-kyungnam.com